

2023년 4월 11일 공보 2023-04-08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3년 4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이화연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지표

		22.2/4	3/4	4/4	23.1/4	22.12월	23.1월	2월	3월
미국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0.6	3.2	2.6	..	-	-	-	-
	소매판매 <sup>1)</sup> (전기비, %)	2.7	0.8	0.2	..	-0.8	3.2	-0.4	..
	산업생산 <sup>1)</sup> (전기비, %)	1.0	0.5	-0.6	..	-1.4	0.4	0.0	..
	ISM제조업 <sup>2)</sup> (기준=50)	55.0	52.2	49.1	47.1	48.4	47.4	47.7	46.3
	실업률 <sup>1)(%)</sup>	3.6	3.5	3.6	3.5	3.5	3.4	3.6	3.5
	비농기취업자수증감 <sup>1)</sup> (전기비 만명)	119.7	128.7	94.8	102.4	23.9	47.2	32.6	23.6
유로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3.6	1.5	-0.1	..	-	-	-	-
	소매판매 <sup>1)</sup> (전기비, %)	-0.4	-0.7	-1.0	..	-1.7	0.3	..	..
	산업생산 <sup>1)</sup> (전기비, %)	0.6	0.4	-0.4	..	-1.3	0.7	..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54.1	49.3	47.1	48.2	47.8	48.8	48.5	47.3
	실업률 <sup>1)(%)</sup>	6.7	6.8	6.7	..	6.7	6.6	6.6	..
	수출 <sup>1)(3)</sup> (전기비, %)	6.0	2.2	1.4	..	-2.8	-1.1	..	..
일본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4.7	-1.1	0.1	..	-	-	-	-
	소매판매 <sup>1)</sup> (전기비, %)	1.3	1.3	1.2	..	0.3	0.8	1.4	..
	산업생산 <sup>1)</sup> (전기비, %)	-2.7	5.8	-3.0	..	0.3	-5.3	4.5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53.2	51.5	49.5	48.6	48.9	48.9	47.7	49.2
	수출 <sup>1)(전기비, %)</sup>	5.8	5.4	0.8	..	-3.2	-6.1	4.4	..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0.4	3.9	2.9	..	-	-	-	-
중국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4.6	3.5	-2.7	..	-1.8	..	3.5 <sup>5)</sup>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0.6	4.8	2.8	..	1.3	..	2.4 <sup>5)</sup>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1	49.5	48.1	51.5	47.0	50.1	52.6	51.9
	수출(전년동기비, %)	12.4	10.2	-6.7	..	-10.0	-10.5	-1.3	..
	교역량증가율 <sup>4)</sup> (전년동기비, %)	4.1	5.3	-0.2	..	-3.8	-2.7	..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5) 1~2월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 하락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지표

		22.11월	12월	23.1월	2.22일	3월	4.10일
전세계 MSCI <sup>1)</sup>		630.9	605.4	648.4	633.7	646.8	645.6
- 선진국		2,720.9	2,602.7	2,785.0	2,730.9	2,791.4	2,786.2
- 신흥시장국		972.3	956.4	1,031.5	982.1	990.3	988.7
VIX <sup>1)</sup>		20.6	21.7	19.4	22.3	18.7	19.0
환율 <sup>1)</sup>	달러인덱스	106.0	103.5	102.1	104.6	102.5	102.6
	신흥시장국 <sup>2)</sup>	50.3	49.9	51.2	50.5	50.8	50.2
	중국 <sup>3)</sup>	7.09	6.91	6.76	6.90	6.88	6.88
국채금리 <sup>1)4)</sup> (%)	미국	3.61	3.87	3.51	3.92	3.47	3.42
	독일	1.93	2.57	2.29	2.52	2.29	2.18
CDS프리미엄 <sup>1)</sup> (bp)	브라질	247.7	254.2	231.4	236.2	226.1	234.9
	인도네시아	91.5	103.6	87.9	100.7	92.1	94.0
	한국	49.5	54.9	40.9	45.6	43.7	46.0
유가 <sup>1)5)</sup> (달러/배럴)	WTI	80.6	80.3	78.9	73.8	75.7	79.7
	Brent	86.6	85.0	85.4	79.7	79.7	84.9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27.3	28.4	365.1	-5.9 <sup>6)</sup>	-7.2	-9.6 <sup>7)</sup>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2.2~2.22일 기준  
 7) 3.30~4.5일 기준

##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출이 IT 경기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1	2022	22.2/4	3/4	4/4	23.1/4	23.1월	2월	3월
GDP 성장률 <sup>1)</sup>	4.1	2.6	0.7	0.3	-0.4	..	-	-	-
(민간소비)	3.7	4.3	2.9	1.7	-0.6	..	-	-	-
(설비투자)	9.0	-0.5	0.5	7.9	2.7	..	-	-	-
(건설투자)	-1.6	-3.5	0.2	-0.2	0.8	..	-	-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5.8	-0.3	-1.0	0.3	-0.9	..	-1.1	5.3	..
설비투자지수 <sup>2)</sup>	9.6	3.3	-0.4	8.6	-0.2	..	-2.5	0.2	..
건설기성액 <sup>2)</sup>	-6.7	2.7	-0.1	0.8	4.6	..	4.9	6.0	..
수출(통관) <sup>3)</sup>	25.7	6.1	13.0	5.8	-10.0	-12.6	-16.4	-7.5	-13.6
- 일평균 <sup>3)</sup>	(25.7)	(6.3)	(13.8)	(5.0)	(-10.6)	(-15.8)	(-14.4)	(-15.9)	(-17.2)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8.4	1.4	-2.2	-2.6	-6.7	..	2.7	-3.1	..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5.0	6.7	2.9	1.7	0.1	..	-0.5	0.7	..
소비자심리지수 <sup>4)</sup>	103.4	95.7	101.2	89.0	88.6	91.0	90.7	90.2	92.0
기업경기실사지수 <sup>4)5)</sup>	92	81	85	78	72	66	66	63	70
취업자수 증감 <sup>3)4)</sup>	36.9	81.6	88.0	78.0	60.4	..	41.1	31.2	..
고용률(원계열)	60.5	62.1	62.7	62.8	62.3	..	60.3	61.1	..
실업률(원계열)	3.7	2.9	3.0	2.5	2.6	..	3.6	3.1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 [ 물 가 ]

□ 소비자물가는 3월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3월중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2.2/4	3/4	4/4	23.1/4	23.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sup>1)</sup>	5.4 (2.1)	5.9 (1.1)	5.3 (0.4)	4.7 (1.1)	5.2 (0.8)	4.8 (0.3)	4.2 (0.2)
▪ 농축수산물	3.6	6.8	1.9	1.7	1.1	1.1	3.0
▪ 공업제품	8.5	7.5	6.1	4.7	6.0	5.1	2.9
(석유류)	36.3	23.7	7.6	-4.1	4.8	-1.1	-14.2
(석유류 제외)	4.5	5.1	5.9	6.1	6.2	6.1	5.9
▪ 전기·수도·가스	8.7	15.3	23.1	28.4	28.3	28.4	28.4
▪ 서비스	3.5	4.1	4.1	3.8	3.8	3.8	3.8
(공공서비스)	0.7	0.7	0.8	1.0	0.8	0.9	1.2
(개인서비스)	5.1	6.1	6.2	5.8	5.9	5.7	5.8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5	4.0	4.2	4.0	4.1	4.0	4.0
(관리물가 <sup>2)</sup> 제외)	4.1	4.8	4.9	4.7	4.8	4.7	4.7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4.5	4.8	4.9	5.0	4.8	4.8
기대인플레이션율 <sup>3)</sup>	3.4	4.4	4.1	3.9	3.9	4.0	3.9

주: 1) (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 [ 금융안정 ]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2.11월	12월	23.1월	2.22일	3월	4.10일
국고채금리 <sup>1)2)</sup> (3년물, %)	3.69	3.72	3.33	3.65	3.27	3.19
국고채금리 <sup>1)2)</sup> (10년물, %)	3.67	3.73	3.30	3.64	3.34	3.24
통안증권금리 <sup>1)2)</sup> (91일물, %)	3.40	3.55	3.46	3.52	3.29	3.23
CP금리 <sup>1)2)</sup> (91일물, %)	5.61	5.28	4.57	4.10	4.01	4.01
회사채금리 <sup>1)3)</sup> (3년, AA-, %)	5.45	5.23	4.34	4.34	4.07	4.00
(3년, BBB-, %)	11.28	11.17	10.57	10.76	10.46	10.39
KOSPI <sup>1)</sup>	2,473	2,236	2,425	2,418	2,477	2,512
원/달러 환율 <sup>1)</sup>	1,319	1,265	1,232	1,305	1,302	1,320
원/100엔 환율 <sup>1)</sup>	953	946	946	968	979	995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1	-1.7	6.5	2.0 <sup>4)</sup>	-0.9	0.3 <sup>5)</sup>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3.2.1~22일중  
5) 4.1~10일중

□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2.2/4	3/4	4/4	23.1/4	22.12월	23.1월	2월	3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31.3	30.3	14.9	19.0	-9.4	7.9	5.2	5.9
▪ 대기업	9.3	12.9	9.7	7.6	-6.1	6.6	0.9	0.1
▪ 중소기업	22.0	17.3	5.2	11.3	-3.3	1.3	4.3	5.8
은행 가계대출 증감 <sup>1)</sup> (조원)	1.8	-1.3	-1.4	-8.1	0.3	-4.7	-2.8	-0.7
▪ 주택담보대출 <sup>1)</sup>	4.3	4.5	5.3	2.0	3.1	0.0	-0.3	2.3
▪ 기타대출 <sup>2)</sup>	-2.6	-5.7	-6.8	-10.0	-2.9	-4.6	-2.4	-2.9
주택 매매가격 <sup>3)</sup> (%)	0.1	-0.8	-4.1	..	-2.0	-1.5	-1.1	..
▪ 수도권 <sup>3)4)</sup> (서울) <sup>3)</sup>	-0.1	-1.2	-5.3	..	-2.6	-1.9	-1.4	..
▪ 지방 <sup>3)5)</sup>	0.1	-0.8	-4.1	..	-2.0	-1.2	-0.8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도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